

‘똥족 제1 마을’에서 펼쳐지는 향촌 진흥 새 그림

귀주성 검둥남묘족똥족자치주 려평현 조흥 똥족 마을에 가본다

귀주성 검둥남묘족똥족자치주 려평현 조흥 똥족 마을은 일전에 습근평 총서기가 다녀간 곳으로서 ‘똥족 제1 마을’로 불린다. 북송 시대에 세워진 이 마을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똥족 마을의 하나이다. 똥족 인민들은 천백 년 동안 대대로 이곳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봄을 맞은 똥족 제1 마을은 다락집들이 빼곡이 들어서있고 나무로 지은 고루(鼓楼)가 우뚝 솟아있으며 푸른 산이 둘러있고 시내물이 졸졸 흐르며 반얀나무가 푸르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 아름다움을 다투고 있어 마치 봄날의 산속 풍경화 같다.

“부지런한 이에게 봄이 먼저 온다.”는 말처럼 그들은 사계절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천년의 농경문화를 끊임없이 전승하고 발전시켜오고 있다.

이곳의 민속 특산물들은 창조적인 발



▲ 똥족 부녀들의 ‘손끝 산업’ 수놓이

전으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향화나(香禾糯)는 똥족의 전통 찹쌀이다. 마을 주민들은 오랜 전통 재배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오고 있는데 생산량이 안정적이고 품질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찹쌀의 은은한 향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나가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또한 명절이 되면 현지 사람들은 오색 찹쌀밥과 나긋하고 향긋한 찹쌀떡을 만든다. 향화나는 점차 소득 증대를 위한 특색 산업으로 되어가고 있다.

다락집 베란다에서, 반얀나무 아래에서 똥족 부녀들은 아이를 업고 수를 놓으며 살아간다. 자수와 랍염(蜡染) 등 천년을 이어온 ‘손끝 재간’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집문앞에서 일 자리를 찾는 ‘손끝 산업’으로 변모했다. 이들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한뼘 한뼘의 수놓이는 문화이자 매력이다. 현재 이 마을에는 60여개의 전통 공예 기업이 성장되어있다. 똥족 마을의 세련되고 실용적인 제품들은 전국적으로 판매될 뿐만 아니라 세계로도 나아가고 있다.

가지각색 다양한 풍미의 음식들로 차려지는 장탁연 그리고 똥족의 아름다운 전통 노래와 다채로운 민족문화는 인정미 넘치는 똥족 주민들이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레의이자 현지 마을 관광을 발전시키는 특색 산업이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2,00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은 430여집이나 되는 마을의 호텔, 민박, 음식점들에서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게 되었다. 마을 관광은 똥족 마을을 세계와 연결시켰다. 널리 인기를 모아왔을 뿐만 아니라 발전의 기회도 가져왔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전통농경, 민속 문화, 민족건축 등 똥족 인민들 매 하나의 삶의 축도는 똥족 제1 마을의 향촌 전면 진흥을 상징하는 새로운 명함으로 되고 있다.

/ 신화넷

◀ 그림같이 아름다운 ‘똥족 제1 마을’

‘조선족 새끼꼬기’ 환인현 무형문화유산으로



료녕성 환인민족자치현인민정부는 일전에 ‘조선족 새끼꼬기(朝鲜族草编技艺)’ 등 6개 항목을 제5진현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명명했다. 선우일녀는 ‘조선족 새끼꼬기’ 현급 대표 전승인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세기 70년대에 새끼꼬기는 환인현 조선족 집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이호래진(현재 화래진에 합병) 광복촌 조선족촌민들은 벼짚, 옥수수 껍질 등을 꼬아 생활기물과 농기구들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90년대 후기부터 일부 촌민들은 상급 부문의 지도하에 새끼꼬 공예품을 제작, 판매해 좋은 수입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후 중청년들의

해외로무로 새끼꼬기는 점차 잊혀져갔다.

그러던 2022년 봄, 현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는 기층에서 조사연구중 광복촌의 선우일녀(1963년생)가 농한기에 벼짚, 옥수수 껍질을 꼬아 바구니, 가방 등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그의 집을 찾아 새끼꼬기 기예를 정리해냈고 그를 현급 무형문화유산 및 대표 전승인으로 추천했다.

현재 환인현에는 현급 이상 무형문화유산이 77개 있는데 그중 조선족 관련 항목이 국가급 1개, 시급 3개, 현급 11개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 료녕신문



‘묘족 자매절’에 전통 노래 대창 행사

‘2025 묘족 자매절’을 맞으며 묘족 노래 대창 행사가 13일 귀주성 대강(台江) 현 웡니하 강변에서 열렸다. 대강현의 묘족 주민 1만여 명이 화려한 명절 의상을 차려입고 강변에 모여 전통 대창 형식으로 관광객들에게 묘족의 노래를 선물했다. 사진은 묘족 노래 대창 행사 현장.

/ 신화넷



광서 여러 민족 ‘삼월삼’ 축제 다양

음력 3월 3일은 우리 나라 여러 민족의 전통 명절인 ‘상사절(上巳节)’이다. 광서좡족자치구 각지에서는 민족 의상을 차려입은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 공연, 전통 의상 쇼, 민속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로 ‘삼월삼’ 명절을 즐겼다. 사진은 오주(梧州)시 몽산현의 요족 자수 전승자와 애호자.

/ 인민일보



운남 시쑹반나, ‘발수절’의 신나는 물싸움

일전, 파이족 발수절(泼水节)을 앞두고 각지에서 모인 관광객들이 운남성 시쑹반나 파이족공원에 모여 상서로운 물을 뿌리며 명절을 함께 맞이했다.

/ 인민넷

귀주 ‘춘 모델 쇼’, 국제 패션주 무대에

일전, 귀주성 검둥남묘족똥족자치주에서 온 45명의 ‘춘 모델 쇼’ 소년들이 화려한 민족 의상을 입고 국제 패션주 무대에 올랐다. 70세 할아버지가 어깨에 댄 농기구에 5살짜리 손녀를 세우고 무대에 등장해 관객들을 놀래우기도 했다.

‘귀주 춘 모델 쇼’의 정식 명칭은 ‘귀주 화미 향촌 무형문화유산 민족 복식 쇼’로서 공익성을 띤 일반인 대상 모

델 쇼 행사다. 행사는 지난해 7월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개리시 풍정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400여개의 테마 쇼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근 20개 나라의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참여한 일반인수는 3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9월부터는 ‘귀주 춘 모델 쇼’가 중국 국제 패션주 무대에도 오르기 시작했다.

/ 인민넷



서장자치구, ‘백만 농노 해방’ 66주년 맞이

국무원 〈새시대 서장 인권사업의 발전과 진보〉 백서 발표



▲ 라싸시 종각로강공원에서 펼쳐진 경축 공연의 한 장면

일전, ‘서장 백만 농노 해방’ 66주년을 맞으며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새시대 서장 인권사업의 발전과 진보〉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서장 문화 건설은 전례없는 변명과 발전을 이루며 여러 민

족 인민의 문화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백서는 서장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와 전승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2024년 중앙정부와 서장자치구는 서장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보호,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자 기록 업무, 전승 활동 및 보호 활용 시설 건설 등을 위해 특별 재정 4억 7,300만 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서장은 문물과 고적을 적절히 보호하고 고서 문헌을 과학적으로 관리했으며 여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전승되고 보호되도록 했다.

백서에 따르면 서장에는 5단계의 공공 문화시설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었으며 기층 공공 문화 서비스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여러 민족 인민 모두가 공공 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서장에서는 주민들이 서장 언어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행정적으로 보장 받았으며 출판, 대중매체, 생활 등 분야에서 서장 언어 문자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교육, 전문용어 표준화 규범화 분야에서도 서장 언어 문자를 학습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서장 중초학교에서는 국가 통용 언어 문자와 서장 언어 문자 교육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신화넷